朝鮮日報
夕刊
十八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一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土曜發行朝鮮日報少年版
月刊雜誌『朝光』(一月號發行)
同『女性』(上同)
同『少年』(上同)

社說

公定米價決定
—生産確保에努力하라—

一

昭和十四米穀年度의 公定標準米價는 十七日의 米穀統制委員會에서 最高標準價格 三十五圓四十錢 最低標準價格 二十九圓九十錢으로 決定하였다。이미 有馬農相이 方針을 聲明한대로 最高價는 前年度에 比하야 同價로 그대로 두엇고 最低價는 一圓六十錢이나 올렷다。米價決定의 經緯를 보면 最低價에 잇서서는 米穀生産費平均 二十八圓六十錢에다가 運賃諸用 一圓三十錢을 加算하면 二十九圓九十錢이 되고 物價參酌價의 下値二割은 三十圓六十一錢이 되는데 以上을 參酌하야 標準最低價格을 二十九圓九十錢으로 決定하얏다 하며 最高價에 잇서서는 家計米價 三十四圓五十五錢에다가 物價參酌價의 上値二割은 四十五圓九十一錢이 되므로 以上을 參酌하야 最高標準價格을 三十五圓四十錢으로 決定하얏다고 周東米穀局長이 發表하엿다。

二

今次의 決定은 여러가지 客觀的情勢에 變化가 생기엇스므로 單純한 法規만가지고서는 決定할수 업는 事情에 잇다。即米價決定의 基準이 되는 今年十一月의 日銀調査卸賣物價指數에 依하야 物價參酌價를 求하면 三十八圓二十六錢이되어 昨年보다 四圓五十九錢(一割三分六厘)의 昂騰이오 米穀統制法에 依하면 最高價格은 物價參酌價의 上値三割(四十九圓七十四錢) 二割(四十五圓九十一錢)間에서 家計米價를 睨合하야 決定하여야 함으로 이에 準據하는 限 最高米價는 昂騰되어야 하는 事情이나 最近의 米穀事情을 보면 米價는 거의 最高價格에 接近하고 最低價格은 『노미날』로 되어 萬一最高價格을 引上하면 即時市價의 昂騰을 誘致할 것이 自明의 事實이므로 最高價格은 銃後國民生活의 安定化를 爲하야 어디까지던지 据置할 方針을 堅持하고 決定前에 잇서 이미 農相이 이 方針을 聲明하야 市價의 『오모와구』를 抑壓하고 이어서 正式으로 最高價格을 三十五圓四十錢 그대로 決定하얏다。一方最低價에 잇서서는 生産費의 昂騰을 考慮하고 戰時農業生産力의 維持、農業生産의 計畫化의 立場上 一圓六十錢을 올린 二十九圓九十錢으로 決定하야 最高最低의 價幅이 五圓五十錢으로 縮少된것이다。

三

이번 公定米價決定에 잇서서 眼目이 되는 것은 (一)物價統制의 目的이 國民生活安定과 生産費低下에 依한 輸出促進에 重點을 둔만큼 物價政策을 徹底케하기 爲하야 米價政策도 이에 順應하야 最高價格을 올리지 안코 그대로 둔것 (二)米穀生産費가 一圓三十七錢(八分七厘)이나 昂騰되엿는데 米價만 引下할수 업슴으로 最低價格을 二十七圓三十錢에서 二十九圓九十錢으로 引上한것 (三)따라서 最高、最低價의 價幅은 五圓五十錢에 不過케되어 米穀統制法實施以來의 最小幅으로 되어 戰時下 投機抑壓의 目的을 達成할수잇게한것 等이다。農相의 聲明과 가티 我國의 食糧補給은 아직 아무 不安이 업다。그러치만 今後時局의 特殊情勢下에 잇서 生産確保가 一層緊要한데 最近의 事情으로보아 問題가 되는 것은 最低價格만 大幅으로 引上하고 米價의 標準이 되는 最高價는 그대로 두엇스니 農家로서 올리지아니헛스니 農家의 增進에 影響이업도록 하여야할것이다。그리하자면 米穀生産資材引下等에 徹底한 方策을 세울 必要가 잇슬것이다。

列國動向如何不拘 目的遂行에邁進

有田外相外人記者團에闡明方針

有田外相

【東京電話同盟】有田外相은 十九日在京外國新聞通信記者團을 外相官邸에 招待하고 東亞新秩序建設에 伴하는 帝國의 根本的方針을 闡明할作定인바 外相談話의 要旨는 다음과 가튼 것으로 解釋된다

一、東亞再建의 大業遂行에 關하여서는 帝國은 指導的役割을 演出하지 안흘수업다는 新情勢及帝國의 抱懷하는 大理想을 强調하고 帝國의 指導的役割及帝國의 公明한 理想은 十九世紀末에 列國이 그植民地에 對하야 行한것과 가튼 自己만을 利하려는 帝國主義的搾取態度와는 根本的으로 相違하야 東亞에 新秩序 新平和를 建設하므로써 全世界에 寄與를 보이려는것임을 認識케함

一、日滿支三國提携의 內在的新情勢를 强調하고 東亞新秩序建設의 積極的目的을 達成키爲하야 即赤化勢力의 防衛、民度의 向上、文運의 振興等 日滿支三國의 政治、經濟、文化諸分野에 亘하야 互讓連環의 樹立이 必要함을 明白히함과 同時에 世界에서 列國이 政治的으로 形成하려는 消極的態度가아니라 日滿支도 如斯한役割을 形成하려는데따라 列國의 動向如何에 不拘하고 日滿支의 互讓連環關係를 樹立하고 東亞新秩序建設에 邁進하려는것임을 認識케함

一、東亞新秩序를 建設함에當하야 帝國으로서는 指導的役割을 演出하여야할것을 自覺하고 聖戰을 開始한것으로서 列國의 動向如何에 不拘하고 萬難을 排除하야 目的遂行에 突貫할 不退轉의 決意를 明示함

長期建設論議展開 戰時下第七十四議會特色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合計三十六億九千餘萬圓에 達할 明年度 一般會計豫算을 決定하고 來春早期 다시 五十億에 達하는 軍事豫算을 決定하야 長期建設에 對한 內外情勢에 對處하기로 된바 來七十四議會의 召集은 벌써 數日後에 切迫하야 玆에 第三回째의 戰時議會를 마지하게 되엿다 前二回의 戰時議會는 事變處理를 中心問題로한데 對하야 今次議會의 特色은 內外에 亘한 長期建設問題를 中心으로 하는것이라고 할것으로서 事變遂行에 要하는 純軍事費와 倂行하야 大陸建設에 要하는 豫算及長期建設에 對處하는 國內戰時態勢의 强化를 目的으로하는 一般豫算이 中心이 되어잇서 前議會에 잇서서와가튼 國家總動員法、電力管理法案과 가튼 重要意義를가진 法案은 提出되지 안흘것이나 現在議會制度審議會에서 審議中인 議員制度選擧法改正案의 答申을 엇게되면 政府는 各方面의 意向을 綜合하야 어더한代案을 作成하고 組閣以來의 懸案解決에 着手하게될것인바 法案으로서는 別로이러타할 問題가 업스나 建設的論議가 展開되리라고 보인다 政府도 今議會에서는 當面의 建設問題에 關하야 議會를 通해서 國民에 政府의 意圖하고 잇는바를 徹底시킬 態度를 取할것이고 近衛首相의 施政方針演說과 陸海兩相及藏相 外相의 演說等도 모두 明快하게 政府의 方針을 闡明할 方針으로 臨하게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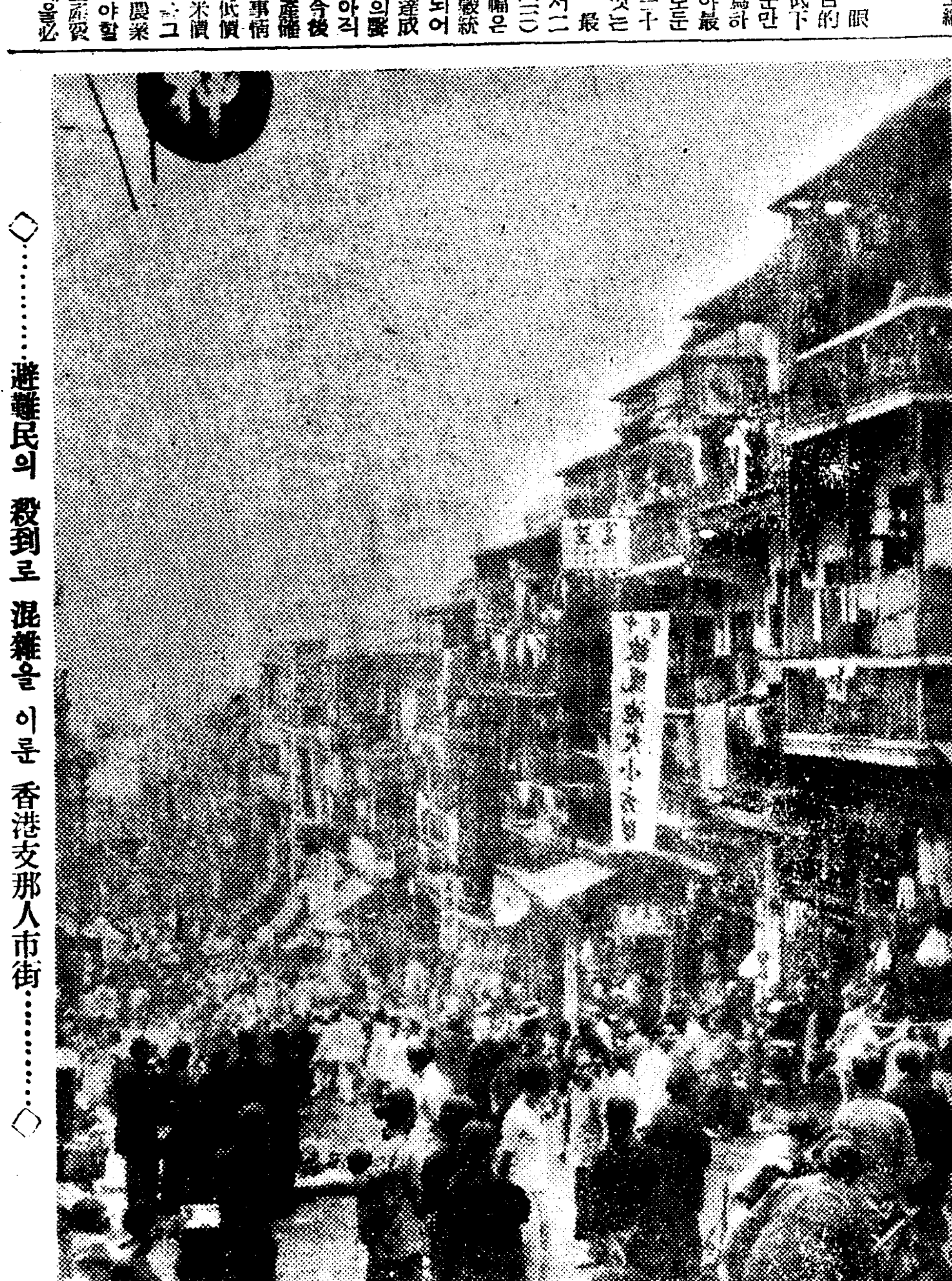
年內議事順序

【東京電話同盟】近衛內閣에 開會되는 事變三回째의 第七十四議會는 來二十四日 召集될것인바 年內의 議事順序는 左와갓다

二十四日의 召集日은 貴衆兩院 모두 抽籤에依하야 部屬을 決定한다음 成立을報告하고 그다음 政府及兩議院에 相互通告함 翌二十五日은 大正天皇祭로 休日 二十六日 午前十一時 貴族院에서 天皇陛下親臨下에 開院式을擧行 衆議院은 開院式終了後 本會議를 開催하야 勅語奉答文을 議決하고 二十七日은 兩院모두 全院委員長常任委員을 選擧하고 또 貴族院은 本會議劈頭勅語奉答文을 議決한다음 兩院議長同道로 參內하야 勅語奉答文을 捧呈함 以上으로 年內의 議事全部를 終了하고 來年一月二十日까지 休會에 入할 順序이다

貴族院各派 對議會策을協議

【東京電話同盟】事變下 第二次 通常議會召集을 압두고 貴族院各派에서는 去十二日의 研究會 常務委員과 公正會幹事와의 聯合協議會를 始初로 十九日에는 研究會를 除한 火曜、公正、同成、同和、交友의 五派協合懇談會를 開催하야 議會를 際하야서의 各派連絡問題를 中心으로 對議會에 關하야 意見을 交換할 作定이다 그리고 貴族院으로서는 政府提出의重要議案이 例年會期末에 殺到하는結果 慎重審議를 期할수 업슬뿐아니라 今議會에는 貴族院自體의問題인 貴革案이 提出될豫定이므로 各派가모두 休會의再開를 기다리지만 各調査機關을 總動員하야 同時로政府側의出席을要求한다음 政府提出議案의審議를準備할方針이다


◇……避難民의 殺到로 混雜을 이룬 香港支那人市街……◇

一條實孝公首相訪問

【東京電話同盟】一條實孝公은 十七日午前十時 首相官邸에 近衛首相을訪問하고 議員制度改正其他當面의諸問題에關하야懇談 同十一時五分辭去하엿다

新任駐米大使 堀內氏着任

【華盛頓十七日發同盟】新任駐米大使堀內謙介氏는 十七日午後五時 華盛頓에着任하엿다 須磨參事官以下大使館員米國務省으로부터 섬마-린儀典課長以下가 出迎하엿다 堀內大使는 一旦大使館에들렷다가 齋藤大使를 病床에 訪問、事務引繼를完了하엿다 十九日午後에 프國務長官代理와會見 着任人事를 述할豫定인바 信任狀捧呈은二十一日頃에 行하기로되엿다

江北六號附近의 抗日自衛團潰滅

【南京十七日發同盟】江北六號附近……

"支那外交의勝利" 米支借款成立과支那紙報道

【紐育十七日發同盟】二千五百萬弗借款成立報道는 蔣政權에게는 最大의 好뉴-스로 支那側은 一齊히 米支借款成立을 歡迎하야 狂喜하고 잇는데 十七日 紐育에 達한 A・P重慶電은 支那의 歡喜狀態를 如左히 報道하고잇다

支那側官邊에서는 米國이 支那에借款키로 決定한것은 支那外交의 勝利요 또民主主義國이 支那에 對하야 同情을하고잇는 證左이라고하고잇다 一方支那紙는 借款成立을 近來의大뉴-스라하야 一齊히 報道하고 그資金은 軍需品及運輸機……

新政權成立後 伊、經濟活動에助力

【羅馬十七日發同盟】東亞의長期建設에 關心을 가지고잇는 伊太利는 近近吳佩孚渡日의 報를 重大視하고 日本의 協力으로支那에 新政權이 誕生하기를 苦待하고잇는데 新政權이 成立될時는 日滿支特殊關係의 新基礎우에서서 新支那의 經濟活動에助力코저하는 熱意를가지고 時局의 進展을 刮目期待하고잇다

藏相首相과會見

【東京電話同盟】池田藏相은十六日午後五時半 五相會議散會後首相官邸에남어서 近衛首相과會見하고 明年度豫算編成 其他當面財政問題에關하야要談하엿다

世界週史

新規增稅斷行決定

明年度一般豫算 大藏省案이 이미決定되어 未曾有의 膨大한豫算을 보히거니와 明春에 決定될臨時軍事費豫算은 一層膨大할것이 豫想되어 이에따라 增稅斷行與否가 注目을 끄으러왓는데 大藏省에서는 去十二日藏相官邸에서 省議를 開催하고 協議한結果 負擔均衡과 消費節約을 理由로 增稅를 斷行키로 決定을 내렷다 程度는 一億圓限度이라하며 內容은臨時利得稅의 增徵及物品稅의 擴大를 主로한것이라한다

十一條發動案決定

總動員法十一條發動問題에 關하야 關係各方面과 大藏省當局과의間에 原則的諒解가 成立된以來 大藏省에서는 理財局을 中心으로 具體案을 考究中이던바 十二日 大藏省에서 省議를 開催하고 池田藏相以下 關係各局首腦部가 參集하야 配當制限問題를 中心으로 協議한結果 大藏省原案을 決定하고 來閣議에付議하기로되엿다 配當制限을 適用하는 會社는 公稱資本金二十萬圓以上의 會社로되엿다。

臨時政府一周年記念

全支蒙疆의 希望을 雙肩에 지고 戰禍中에서 出現한 中國臨時政府는 去十四日成立一周年記念日에 當하야 同日午前十一時부터 北京中南海公園懷仁堂에서 記念式典을 盛大히 擧行하엿다 式場에는 行政院長王克敏氏以下 各政府要人이 參列하고 王克敏氏는 長文의宣言을朗讀……

蘇聯暫定協定拒否

日蘇漁業交涉은 東鄕、리트비노프間에 三回에 亘하야 交涉하엿스나 蘇聯의 遷延策에依하야 手續을 完了키가 不可能하므로 外務當局은 不得已 다시 暫定協定을 締結키로하고 去十二日東鄕大使에게 請訓을 發한바 蘇聯側은 何等의 誠意를 보히지 안코 暫定協定까지 拒否하는 態度를 取하고잇다 이에 對하야 帝國政府는 年內로 我方針을 決定하고 邁進할것이며 이와同時에 最惡의 事態에 對하야도 萬全의策을 硏究中이다。

英米의對支借款說

最近英米兩國의 對支借款成立說이 자주 傳하고잇다 中國關係에 依하면 英國의 對蔣借款은 이미 成立되어 英國은 支那에一千萬磅을貸付하기로되엿다한다。또 華盛頓十四日發同盟電에依하면 米國의 對支二千五百萬弗의借款案이 作成되어 大統領의裁可를 기다리는 段階이라하며 十七日의 香港發報道는 支那借款成立을 大大的으로 報道하고잇다。

메멜地方問題

今月十一日 메멜地方의議員選擧에 獨逸系메멜黨이 壓倒的勝利를 拍한結果 메멜獨逸人의 合併實現說이 傳하야 世界의耳目을 集中하엿다 이와同時에 議會의 메멜獨逸派議員決定과 同時에獨軍의 即時進駐說까지 傳하엿다 이에 對하야 駐獨英佛各大使는 十二日獨逸外務省에 對하야 메멜地方現狀維持를 希望하는 抗議를提出하엿다。

日曜氣配

▲株式 氣迷深刻 變方이 全然 見送할形勢이나 議會案觀으로現物方面에는 買氣가 보이고 氣配는 底堅으로 動候待
大新七〇、〇〇 東新一二五、五〇 鐘紡一四九、〇〇 滿業六七、五〇

▲期米 新公定米價高價格은一般的 豫想과反對로 湯氣로化하야 氣配는 一、二十錢低이나 最低米價의 大巾引上은 生産者를 氣分的으로 安心시켯다 그러나 深押은 困難할듯
最高米價 三五、四〇
最低米價 二九、九〇

八面鋒

蘇聯의 漁權拒否는 國際條約을 無視하는 頑態이니 暫定協定이 라는것으로 督促하는것이 務하지아니할까?
◇
最惡의 境遇를 생각하고 萬全을 期하는 一途가잇슬뿐。
◇
公定米價가 發表되엿다 昨年度에 比하야 最高는 不變이요 最低는 一圓六十錢이 올랏다。
◇
生活費가 昂揚되여젓고 物價가 高騰하여젓스니 米價가 引上될것은 當然事。
◇
農家經濟가 이로써 多少라도 改善된다면 農村의 振興은 從此可期。
◇
海의 王國 英吉利는 또新建艦計畫을 發表하엿다 一年間進水될 隻數만이 四十五隻。
◇
制海權을 確保하려는 心算인가? 米國의 海軍擴張과 佛國의 海軍擴張은 다무엇을意味하는가?
◇
銃後의 食糧完全은 食糧生産의 確保에 잇는것은 重言不必要。
◇
河川의 改修築工事가 促進되는것은 宜當事
◇
高利貸가 잇는者에게 다시 低利의 貯金을 强勸하는것은 矛盾 地方細吏들이 自己成績을내겟다는데서 이러나는일。
◇
要는 銃後國民의 精神團結에잇다 細吏의 成績等은 問題도 안되는것。

獨逸의今後目標

波蘭?或은루마니야로進出? 陸軍兵力을大擴充

하바스通信社倫敦支局은 十五日 英國軍事通으로부터 엇은情報라하야 日獨反코민테른協定成立後 獨逸은 自己의勢力範圍를 擴張할 目的으로 軍備擴充을 繼續하고잇는데 左와가티 報道하고잇다 反코민테른協定締結後 獨逸은 새로운進出을 準備하고 軍備擴充을 繼續하고잇다 英國軍事情報에 依하면 現在에 이르는 동안 以後 獨逸陸軍은 八個師團을 增設한바 그中四個師團은 快速攻擊部隊로 重裝甲車部隊 二個師團 機械化部隊二個師로 되여잇다 그데리안大將은 特히 新設된 地位(快速軍司令)에 任命되여 右 四個師의 總指揮에 當하고잇다 다시 機械化師團의 約一個師團은 上시레지아에 駐屯하고잇다 또이와 同時에 獨逸空軍도 急速度로 擴充되고 新航空機生産高는 每月七百臺에 達한다고 推算된다 獨逸陸軍은 다시나아가 一九三九年度부터 一定數의 專門家를 召集入營시키기로決定한 模樣이며 또墺地利로부터 시레지아에 通하는 道路構築을 開始하엿다 全體的으로보아 新設攻擊師團은 東部及東南部獨逸에 配置되고 防禦及要塞部隊가 西部國境에 駐屯하고잇다 此等의事實을 綜合하야 一般的으로 獨逸의 次期의進出은 波蘭乃至 루마니아方面에 向하게되리라는 觀測이 有力化하고잇다 (寫眞은 히總統)

波蘭・리투아니아間 通商協定成立

【왈소十八日發同盟】압서부터交涉中이든波蘭、리투아니아兩國間의 通商協定은 十六日成立 來週中에 調印을 하게되엿다 兩國의 貿易額은 年一千二百萬오리타스에 達하며 貿易品은 波蘭으로부터는 鐵製品, 세멘트, 絹織物, 리투아니아로부터는 魚獸皮, 農産種子等이며 新通商協定은 一層兩國間의貿易을 增大할것으로 期待된다

注目할蘇聯新政策

內로는鎖國主義强化 外로는國際赤化强行

歐洲新情勢에 對應코저 今後蘇聯이 內外的으로 如何한 動向을 보일것인가는 一般에게 注目되는바이다 이에關하야 歐洲外交界에서는 如左한 觀測을 하고잇다 即對內的으로 스탈린政權의 一層强化에 邁進할것이다 그리고 스탈린政權은 最近게・페・우組織의 完備와相俟하야 더욱獨裁化하여젓다하나 스탈린政權强化의 一手段인 淸黨工作의 强行으로 同政權에 對한 不滿은 各處에 伏在되여잇스며 今年度의 穀物不作等은 民心動搖의 要素이된다고 하여도 同政權이 顯著히 强化된 今日에서는 스탈린을 威脅할 陰謀를 企圖하기는 全혀不可能하게되엿다 이것은 外國에 接觸한 境遇에도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스탈린은 今後自己政權의 飛躍的强化手段으로서 鎖國政策을 益益强化할것이다 이것은 外國知識의 移入을 全然禁遏하야써 스탈린政權에對한 國民의依存心을 收攬하는 同時에 防諜의 完璧을 期코저함이다 各國外交代表의 各種交涉이 最近모두 不進하고잇는것으로보아 明白한바 크레물린으로서는 今後莫斯科駐在公館의 人員에 致命的 制限을 加할는지도 알수업다 그리고 對外的으로는 리트비노프平和政策과 콤민테른의人民戰線政策의 二方針으로 나아갈것은 以前과變함이업슬것이나 콤민테른活動은 一段强化될것이다 뮨헨會議後 크레물린內部에서는 一時리外相의平和外交를 撤廢할것이라는 議論도잇섯스나 그不利함이 指摘되여 依然 리트비노프外交로써 推進키로되여 玆에 리外相의地位도 安定하게되엿다 그리고蘇聯의 對外的焦眉問題는 獨逸의 東漸을 如何히 封鎖하는가에잇다 리트비노프로서는 獨逸과 日本과의間에 이미 軍事同盟이 締結되엿다고 臆測하고 이것을토대로 歐洲에서는 爲先 第一段의方策으로서 빨칸及 발틱沿岸諸小國懷柔策에 熱中하며 極東에서는 對蔣援助를 一段强化할것이다 그中 빨칸工作은 波蘭에서 어느程度의 成功을 보앗다고하지만 今後 아직 幾多의 障碍가잇서 리外相의 意圖대로는 안될것이다

今日本紙四面

無病長生
病으로煩惱하는분께 推奬하고시픈 養生法

溫泉地帶에産出하는成分으로만든排毒、淨血劑和黃錠을每日一回아주小量씩잡수시고就寢하면翌日多量의赤黑色大便이나오고全身의病毒이順理로分解하야體外로排泄되며氣分이爽快하고、머리가가벼워지며 左記와가튼容體인분에게 곡神效하다고 환영을 밧슴니다

이런容體에
肩臂痛、耳鳴、頭痛 不眠症으로 辛苦하며 動悸와숨이차며 血壓이놉고 手足이 아프고저리며 元氣

根氣업고便秘로氣分이沈鬱한데

酒煙草를만히하고肉、白米、砂糖等의酸性食物을過食하며、便秘나黴毒、結核이잇스면血液은酸性으로하야中毒症狀을이르키는것인데 그우에過勞나근심이잇서서밤에安眠을할수업던지하면全身에毒素가發生하야 頭痛、耳鳴 肩臂痛動悸와숨차는等 原因이됩니다 또 動脈이硬化하야血壓이노파서中風、半身不隨로煩惱하게되며手足이무겁고아프며 저리고神經痛이나류마치스 婦人되는분은月經時히스테리-로苦生하며 元氣根氣가衰退하야 早老하는것입니다 病을治療하야 長生하는데는病根이되는 前記의諸毒을大小便으로 取去시키는것인데 이目的에應用되는것이 和黃錠으로 一日一回就床前服用하시면 翌朝便하게大便속에 毒을내보내고氣分이爽快하고머리가가벼워집니다。

和黃錠의뛰여난効驗

이藥은決코多量으로 服用할必要가업고一日一回服藥으로充分하며 오히려처음에는効果가 지나치게잇난고로 一、二錠으로부터始作하야漸次增量하야 三-四錠으로하는것이適量으로 되여잇슴니다。全身의病根이 分解하야順理로兩便에섞겨排泄되여 氣分이爽快하며 肩臂痛、頭痛이업서지고 머리도맑어집니다。血壓도 完全下降하야 手足이저리고아픈症이적어지고內分泌도 調定되는고로元氣根氣가더해집니다。뒤를 잘보게되면 머리무거운症과 憂鬱症도解消되며 오래만에 氣分이씨슨듯하게되엿다는이도잇슴니다。

至毒한便秘에 千葉縣 島田 邦氏

拜啓 生은오래동안 至毒한便秘로困難을밧던中突然新聞紙上으로貴所의和黃錠에 關한글을읽고去四月十二日東上一個月分을買求하야即時使用하엿든바놀날만큼効果가잇서서 繼續하여服用하고잇슴니다 大端히 感謝합니다後日買求할時는貴地에 親戚이잇는 故로그리로부탁하겟슴니다

肩臂痛도나어 北海道 宮本友次氏

拜啓 初夏之節 貴所益益殷盛하심을 奉賀하오며 就先日和黃錠一個月分을 下送하시여 即時服用하엿삽든바 肩臂痛이 곳업서저서 其藥効에 놀라고잇습니다 어제一個月分 더服用코저하오며 또한小生의 友人二人도服用하고저하오니 一個月分三個代金五圓四十錢을 至急代金引換으로下送하여주시기바라나이다

手足이저린데 福岡 加地八十一氏

拜啓 先月送藥하신和黃錠服用하엿삽드니 허떵기는것 手足저리는等症狀이減少되고 눈도至極良好하게되엿삽니다 就此藥書到着하는대로 代金引替로一個月分下送하소서

血壓도내려 長野縣小平 涉氏

拜啓先日은 速히貴所의藥을 보내주시어서 實로 感謝합니다 藥의恩澤으로 藥効도잇고 血壓도내려서 大端히몸이 便하여젓습니다 얼마나 이러한病이 괴로운것인가를 自身이 알어보고야 새삼스레 느꼇습니다 藥은病人에게 나누어 주엇사오니 이葉書到着되는대로 至急二個月分下送하여주십쇼 貴所의 研究를하시여 社會를 爲하야 援助하심을바라나이다。

動脈硬化도快方으로 宮崎 毛利元享氏

拜啓 益益隆昌하심을 賀하오며 就懇般貴所發賣의 和黃錠을注文하엿든바 早速代金引換으로送藥하여주시어 感謝하오며 恩澤으로 難症인 動脈硬化도 나날이快方으로向하야 家內中모두기뻐하오며 此藥書到着되는대로 一個月分 代引으로 下送하시압 小生은 어제까지 動脈硬化症으로 全國發賣의 適藥을 服用하엿사오나……그러나 貴藥을 服用後로는便通이 조와지며 머리무거운症과手足이저리든것도나어서 愉快하게날을보내고잇습니다

(藥注文하시면添付해드립니다)

病을早速快差케하는養生法 無代進呈

病은藥으로만은 決코早速히 快差될수업습니다 藥의服用과가티 養生法을 직히지안허서는 아니됩니다 그대신 適當한養生法을 實行하며 藥이體質에마즈면 意外일만큼 速히病이 나어버리는것입니다 爲先葉書한장을던저서 이眞理를會得하십시요。

排毒 淨血 通便 特殊養生藥 和黃錠

○實로氣分조케 大便을보고全身의病毒이順理로分解하야 大小便과가티排泄되며 血色이조와집니다。
○血液이 淨化되는고로 血壓이完全降下하고 頭重、頭痛、耳鳴、手足저린것이낫습니다。
○一日一回의服藥으로 適量은三-四錠이나最初에는 一、二錠부터 始作하시오。服用하는것은 밤就寢時가第一조코 翌日氣分조흔大便을보시고머리가爽快해집니다。
○內分泌을正調로하는 作用도잇는 故로元氣와根氣를增加시킵니다。
○副作用이업고 他藥劑와가티 使用하드라도조금도支障이업습니다。
○大便이赤黑色이되며 小便도色이달러지는이가잇스니이는毒때문입니다。

藥價極히低廉
一月分 金一圓八十錢
二月分 金三圓二十錢
四月分 金五圓五十錢
九月分 金十圓
送料內地十錢海外二十錢增 되도록直接注文하시요代金引換도送합니다

左記代理店에도잇소
東京玉置、大木、中田、國友、川手、大木分店、大阪丹平、高橋、小林大藥房、名古屋小林大藥房、仙臺櫻井、秋田市佐野、札幌、秋山、函館市白崎、旭川市北海製藥、室蘭市小松、小樽市總合

東京市四谷見附傳馬町一ノ三 電話四谷(35)一五六一 振替東京四八三二四 特殊榮養研究所

精力增進
造血アウト ホルモン
補血强壯
ブルトーゼ (부루도제)

各帝大病院常備藥

ブルトーゼ 補血强壯
アルゼンブルトーゼ 神經衰弱
ヨードブルトーゼ 腺病諸症
キナトルゼ 健胃强壯
グアヤコールブルトーゼ 結核諸症
ネオフブルトーゼ錠 安産强兒
(冊子「活動の源泉」進呈)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市日本橋區本町

重石盜堀黨送局開始

派守、採掘、運搬三隊로 名山을좀먹든惡黨!

竊盜、詐欺、恐喝、脅迫等의罪名으로 一次送局이七十餘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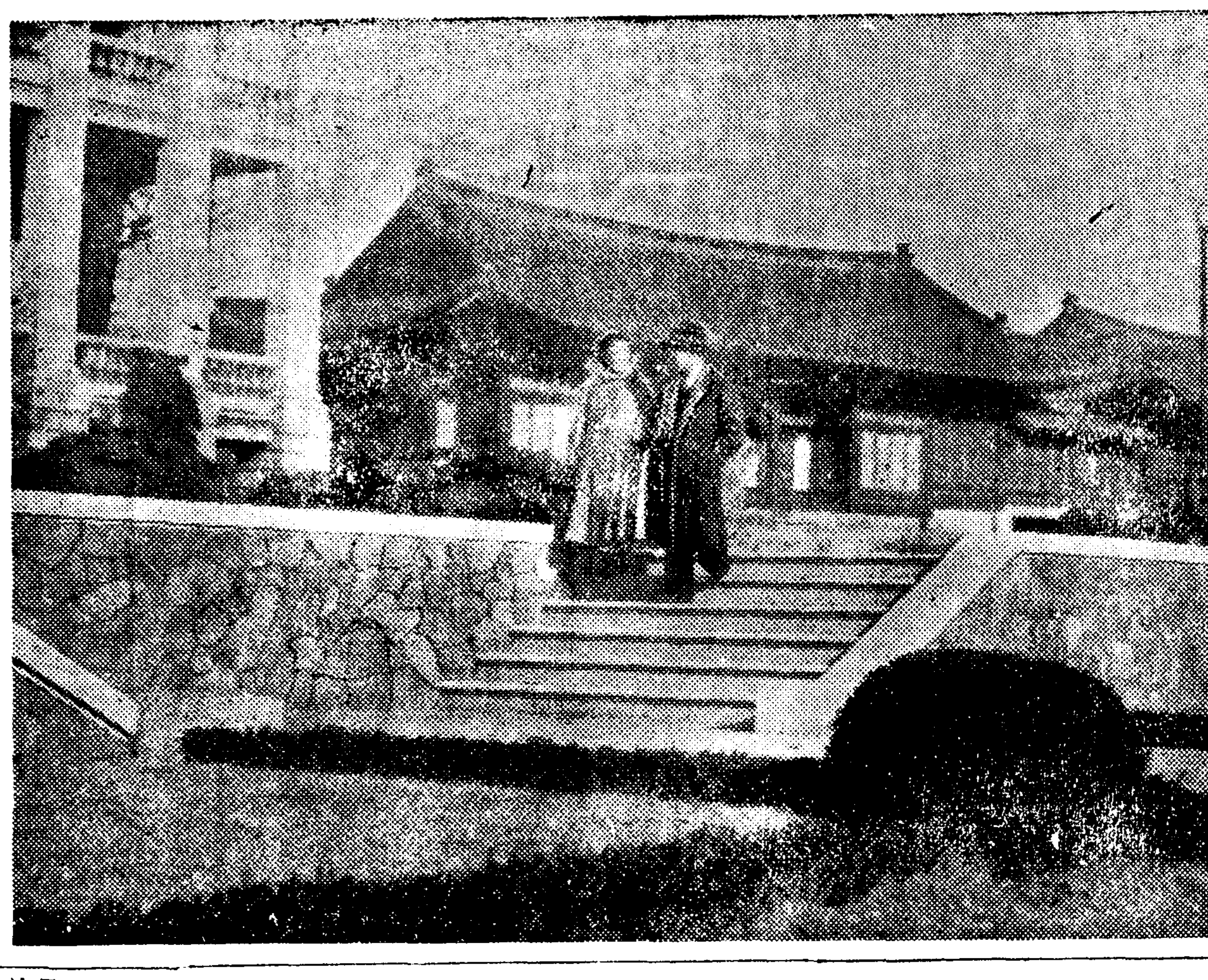
【咸興】천연광산금강산을 좀먹어드러가는 중석(重石)도굴단일백십사명이 회양(淮陽)통천(通川)고성(高城)세 경찰서의 손에 일망타진되엿다함은 당시에보도한바어니와 검거망에 걸린일백십사명중 고성경찰서에 수용하얏든 칠십여명은 그동안취조의 일단락을고하고 지난십칠일 구러세일차로 원산검사분국(元山檢事分局)에 송치하기시작하얏다 이들의 범행내용의 대개를든건대 내금강비로봉(毘盧峯)천불동(千佛洞)의 금강산성암(三聖庵)등 가장인적이히소하야 용이히 발견되지안는곳에움집을짓고 그곳에 숙식을하여가며 파수대(派守隊)채굴대(採掘隊)운반대(運搬隊)등 각각분업적으로 나누어가지고 중석을대량도굴하야 원산、경성기타 각노지로 비밀히운반날매하야 일농판식하든것인데 그들의 죄명은절도、사기、공갈 협박등이라고한다

뽀너쓰노리는네온街

警察、探査의血眼

營業時間、不當抑賣嚴重監視

연말네온혁가에 경찰철퇴가내려진다——상금(賞金) 군수(軍需)등 기업이 왕성하야 금년의 뽀―너스는 오십할 백할이란 목직목직한 뭉투둥이 뽀―너스가에떠러지기시작하는 요지음 허풍선가튼 뽀―너스경기로 팔미아마네온가는 전에보지못하게 은성하여저서 엄청난 매상고를 올리고잇다 이러한바면에 손님의 쟁탈전이 맹렬히 전개되여 천하의 활냥은 월급쟁이라는듯이 사무실에 여급이 전화를 거러서 손님을 꼬여내다든지 혹은 터무니 비싼 술을 제한업시 따루어 드리온 손님은 남김업시 주머니를 털러내 보낸다는 악질의 상책(商策)을쓰는 업자들이만흠으로안이라 시간제한을무시하고 흥은시간이 지난뒤손님과 더부러 풍기상 재미롭지못한짓을하는자가 갑작히는것으로서보안계에서는 지금부터 크리스마스전후 연말에 이르기까지 네온가의 숙청을위하야 평복경관으로하야금 엄중감시하게하고 위반자는 용서업시 영업정지의 혹독한 처분을하기로 되엿다



◇小春의日曜(오늘덕수궁에서)

第二期志願兵 廿一日入所式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 금년 도후기생도의 입소식은 이십일일오전열시삼십분부터 남총독임석하에 거행되는데 입소식순서는 다음과갓다

一、國歌合唱
一、勅語奉讀
一、生徒總代宣誓
一、所長訓示
一、總督告辭
一、來賓祝辭
一、祝電披露
一、皇國臣民誓詞齊唱
一、「바다로가면」合唱

天津朝鮮人 婦人會活動

천진(天津)조선인부인회에서는 종래부터 국방부인회(國防婦人會)와과 흥동협력하야 출동부대또는 귀환부대의차대접 상병병(傷病兵)의위문등을하야 각방면으로하야금 감격케하야 오던바 지난십일월상순이래 부러는 매주금요일을위문일로 정하야 황군을위문하고 또요즘은 부인회원들의손으로 주머니를 지어서 각집으로부터 위문대이백사십꽉개를 거두어가지고 천진재향군인분회를통하야황군에게보내엇다 한다

빗淸算할길업서 病軀、餘生을淸算

歲暮街頭에貧苦悲話

부내 북아현정(北阿峴町)이십사번지 김계성(金桂成)(?)호집 칠일 오후다섯시반쯤 자기방대들보에목을매고 주엇는데 그는 삼년전중독에걸려 고생하지나던중 연말을당하야 각처로부터의 빗재촉이성화가터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한것이라고한다

失戀한妓生 飮毒自殺

【城津】시내 욱정(旭町) 낙영루(樂永樓)에잇는 박산홍(朴山紅)(二○)은 십칠일 오후 열한시반쯤 다량의 『칼모친』을 마시고 그만죽어버렷다 우서에의하면 면그마음을 허락하엿든 욱정(旭町)이모(李某)(?)의 마음이 변한것을 비관한까닭이라한다

內地의新兵

昨朝龍山各部隊에入營

영예스러운 입영을하려 내지로부터 신병○○○명이 십칠일오전여덜시오십칠분 경성역에 도착하엿다 역두에는 용산사단수뇌부각부대대판계자가 출영한가운데 일동은역전마당에서대를지여 각각 배속부대에 입영을하엿다

올림픽種目團體는 無方針時代到來

大衆的스포츠에轉向?

日本스포―츠界가 未曾有의 國家的非常時局에 直面하야 今後 如何한 動向을 보힐가하는것은 世界의注目을 이끌고잇는데 一九四○年의 第十二回東京·올림픽大會를 目前에두고 陸上競技、水上競技、庭球、蹴球、籠球、排球、陸上하키、馬術、拳鬪、體操、自轉車競技、레스링、스케―트、스키―等의 各올림픽團體은 올림픽大會參加、不參加의 大方針이 아직決定되지못하야 目下其去就를 모르게되여잇서서 各方面으로부터는 現下時局으로보아서 스포―츠도 從來의 個人的英雄主義를 버리고 모름지이 國民全體의 體位向上을 目標로하는大衆的 스포―츠에로 轉換하라는 부르지즘도 擡頭하야 各競技團體가 모두無方針時代에 處하야잇다 그리하야 政府의 스포―츠界 統制工作은 着着進步되여 明治神宮體育大會가 政府主管으로 옮겨저서 明年度부터 東京本大會와 呼應하야 地方에서도 明治神宮體育大會를 開催하게 된 것은 明確히 스포―츠界의 第一線 選手 獨占의 舊習을 打破하는것으로 日本스포―츠界도 亦是重大時局에 當面하야잇다고 할것이다 이에對하야 大日本體育協會에서는 不遠에關係官廳과 懇談會를열고 올림픽大會參加의 可否와 및 一九四四年올림픽大會開催權 獲得問題、日獨伊文化運動競技等에 對한 態度를決定하기로되엿는데 同時에體育團體의 統制를 强化하야 將來에는 加盟二十一團體를 各其目的에 依하야 綜合的 計劃을 行할 目的으로 各團體에 對하야 目的及將來、創立以後의 主要한事業、組織、內規、學生團體와의關係、物質關係에 依한 用具의 經費關係及 將來의 對策等에 關하야 報告書를提出하도록 要求하엿다 體育의 合理的行動은 國家의 要求에 이와가튼 方向과 新動向을 示唆하는것으로 그成果는 자못 期待된다고한다

延專氷上스케―트部 安東縣서合宿

延專氷上 스피―드、스케―팅部에서는 지난겨울 第一回大學、專門 氷上大會에서 優勝한 名譽를 死守코저 이번 冬期休暇를利用하야 約十日間 豫定으로 安東縣에서 合宿練習을할터이라는데 그陣容은 다음과갓다 ▲部長 金永成、마네저 元應燮、主將 李成根、金炯洙、閔泳敎、崔永錫

獨逸스케―트界近況

【伯林發同盟】獨墺合邦과 스테(?)… 스케―트 大스케―트 選手에서 重大한 陣營을 占하기에이르럿다 「스피―드」에잇서서는 濠洲人「와스·스타―볼」(三十歲)의 『와스레』의 兩者가잇서 北歐三國의强豪에 對抗하야 歐洲選手權을 獲得하엿든 中歐에서도 距離의 「레반」(?)、「베레인가―」、「산본나―」(一萬米第六位)과 「분헬」의 『산본나―』(一萬米獨逸記錄18分2秒의保持者)과 맛『베―사―』選手가 加入하야 스피―드陣은 一層旁觀과어개를 나란히하야 諾威、瑞典等의 最高峰에 接近하엿다

에섯키大會蹴球에 英國서처음參加

芬蘭헬싱키·올림픽 大會委員會의蹴球部長 『오렌겐』氏(헬싱키 市長)는 芬蘭蹴球協會會長이며 지난十一月十一、二兩日間 倫敦에서 열리엇든 國際蹴球聯盟(FIFA)의特別委員會에 出席하는 同時에 英國蹴球界의要人들과 交涉을 거듭한結果 한번도 올림픽蹴球大會에 參加치안엇든英國을『헬싱키』大會에 參加케하는데 成功하야 特別委員會에서도 英國委員으로부터 그同意를 正式으로 發表하엿다 이리하야 蹴球參加國은 伯林大會의 十六個國을 突破하야 二十個國에 達할터이라고 氏는 豫測하고 잇다 또 氏는 때마츰 倫敦에 滯在中의 IOC會長 『바툴―』·『라투―르』伯과 英國IOC委員『파―레―』卿과 會見하고 一九四四年의 第十三回國際올림픽大會開催地로써 芬蘭은 倫敦을 支持한다는旨의 確約을하엿다

二萬面吏員은우스라!

地方費增稅、國庫補助

懸案의待遇改善斷行

生活安定能率向上行政刷新目標로

明年부터實施를決定

최일선의 행정기관으로 제일선에서 민중과 직접접하는 면리원의 고락을가티하는이만의 조선면리원(面吏員)(면장은 포함치안헛다)에 명랑한 소식——전조선이백구십여면의 현재 모두 면서기또는면기수등 리원이부족하고 또 그들의대우가 극히빈약하야 충분한 활동을 내기에곤란한현상이다 그리하야 총독부 내무국에서는 제일선에서 분투하는그들의 대우를 개선하는것이조선행정쇄신상 가장 긴급한문제라하야 연래로 그대책을 강구하기에 고심하든중 맛츰내 명년도부터는 실현하기로되엿다 그내용인즉 명년도부터 지방비를 약간증세하야 거게다가 상당한국고보조를주어가지고 일반면리원의 대우를 개선할터인데 내무국에서는 명년도에 그예산을요구하야 이미재무국의 사정을 거친바 산판게가잇스므로 일년동안에전면리원증원을 실시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므로 이개년내지 삼개년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게되엿다 그리고또 근래사회의 발전과 정세의변천으로 행정사무가 복잡다단하야 가기때문에 면사무소의 내용기구를확충강화 하지안흐면안될뿐더러 면리원의대우개선이 절대필요된후에는 곳계속하야 각면의 리원증원을 단행하기로되엿다

城津港施設促進

市民大會서可決한宣言決議를 要路當局에打電情陳

【城津】개항한지반세기의긴역사를가지고잇는 북조선중부의 요진(城津)은 최근 북조선개척사업의 진전과 각종중요군수공업의발흥 교통망의 완비에따라 상권확장등 급격한변천으로 말미아마 일약국가산업경제상중요한항구로 등장하기에이르럿다 그러나 제반시설에잇서서는 푸대접을밧고잇서서 역시 지방항으로서의 탈을벗지못하야 시설확충을 기회잇는대로 당국에호소하여오든중 총독부당국에서도성진항의 내외적중요성에 비치어 가장시급한시설의 하나로 소화십일년부터 총공비 이백육십만원으로 오개년계속사업으로 착공할사에 착수하야 소화십오년도에는 완성하기로 되엿든바 금춘총독부당국에서는 금년도공사예산오십사만원을 이십육만원으로 삭감하야 결국이공사는 일년간연기되여 그간요로당국에 완성연도단축을 요구하여왓섯다 그리하야 다시금 오십만톤의 하역능력(荷役能力)을 가질수잇는 연장공사와 도로(要港道路)공사비 삼십이만원의 시설을하도록 명년도추가예산으로 일백오십만원과 이외변항하야 원을 요구하엿든중 이것도 마저삭감되엿다 그리하야 십칠일오후 일곱시부터 기성회주최로 읍(邑)대회의실에서 성진시민대회를개최하고 다음과가튼 대회선언과결의를하고 실행방법에잇서서는실행위원회(實行委員會)에서 당국에 타전진정(打電陳情)하기로 한다음 아홉시 삼십분산회하엿다

◇宣言=北朝鮮中部에잇서서資源의 開發及重要軍需工業과 産業經濟의 中心基地로서 重大役割을 負하고 國策遂行의使命을 다하고잇는 我城津港의 施設은 戰時體制下의 軍需生産力急速擴充方針에 背馳되는 實況에잇스므로 此의 施設整備는 寸刻의 躊躇를 許치안는것이다 吾人市民은 敢然奮起하야 目的의 貫徹에 猛進하려고함

右宣言함

昭和十三年十一月十五日 城津市民大會

◇決議=時局에 鑑하야 城津港의 整備速進을期함

右決議함

昭和十三年十一月十五日 城津市民大會

旗 宇田旗店 金山榮町一 電一二六七 振替金山一二三九

二重過歲는二重苦痛

年末年始銃後報國强調週間 第五日

色鉛筆

전차가비좁다 배차(配車)가 부족하다 승무원이 불친절하다 운전수가까치다 등등……▲경전에 대한시민의 원성은 헤어려 열손가락이 오히려모자를판이다 이마작에 또중고운운은 우이독경(牛耳讀經)격이될가하야 못내단여까지햇든바▲경전(?)의 최신식전차를 만드러며칠전부터 비난데부렁식헛겻다▲경전이일급을처틀고 자랑하는이신차의특색이란승객의안는좌석을 주리고서는 장소를예개하야 이러서입행(立行)전차를 시민에게 제공▲고심한남어지에 승객에게써―비스가기시못안저라는것보담서서라시타고?▲이 이상 더써―비스를햇단들 세워태우는것보담 밀가루자루처럼 동개재여태웟스면 호치한승객을 천문(?)하기에 더욱간편할것이아닌가▲경전용심대로햇스면 경영시민이소인국(小人國)인종으로 변하야 전차한대로 천명식쯤 운전하게 되엿스면 조치만는!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蒙古에서北支那와 滿洲朝鮮에퍼저서 잇고 本邦方面氣壓은 차차야타저서 西日本은 弱한低氣壓이 고南海上은 비(?)한 低氣壓이다 滿洲、朝鮮은 晴、湖南地方은 흐렷고 北西風이强하며 內地도 天氣가 조흔데北海道는 흐려잇다

豫報 今夜와明日은 맑다

昨日氣溫最高 六度七
同最低 零下○度六
今朝 零下七度二
今日正午 零下二度三

曆

▲十二月十九日(月曜)陰十月二十八日 ▲干支乙酉 ▲日出 午前七時四十二分 ▲日南中 午後零時二十分 ▲日入 午後五時十八分 ▲晝間九時二十五分 ▲月出 午前五時十二分 ▲月入 午後二時二十分 ▲滿潮(仁川)午前二時五十五分 午後二時四十五分

택시와트럭 正面衝突

今朝·竹添町의事故

십팔일 오전여덜시쯤부내 죽첨정(竹添町)삼정목 금화장(金華莊)주택지를 통과하는 고든길가운데 연희장(延禧莊)방면으로부터오든 조일(朝日)자동차부 택시―와 용산송정조(松井組)화물자동차가 정면충돌을하엿다 이결과 『택시―』운전수 홍대웅(洪大雄)(?)은 허가 찌저저적힌 중상을 당하야 신가병원에서 치료를밧고잇는중 『택시―』는 약일백이십원의 손해를 입고 피해자동차는 약유십원의 손해 승객이업서서 요행이엿다고하며 송정조의 화물자동차운전수가 운전을 그릇하야 이사고가 난것이라고한다

崔鎭祥氏告別式

【水原】향토방문비행도중 대판(大阪)에서 불행이도 수충고혼이된 공중의용사 이등비행사 최진상(崔鎭祥)씨의 유골이 고향인 수원(水原)에 도착함을 기회로 그영을 위로하기위한 고별식을오는 십구일 오전십일시 수원읍 남수정(水原邑南水町)룡주사포교소(龍珠寺布敎所)에서 수원허군수(許郡守)의 집례로거행한다는바 일반유지의 다수참석을바란다고한다

愛機는남기고 쓸쓸히歸國

큰돌機遭難後報

【마니라十七日發同盟】행케기장(機長)이하 큰돌기 승조원일행은지난칠일 조난이래 기체구출작업중이엇는데 기체를 끌러올린결과 비행계속의 희망이끈허젓스므로 십칠일 오후아홉시마니라출범의 독일기선으로 독일로도라갓는바겨우비행기의 기관일부를 가지고갓슬뿐으로 기체는마니라에 남겨두엇다

祐
銃後의 歲暮에 浪費업는 贈答品!
醬油
嶋屋醸造株式會社

ぜんそく 천식 百日咳 식
アスモン錠
喘氣는喘息、百日咳의發作을誘發키쉽고…アスモン은 劇藥에依한 注射療法時와가튼 中毒性의不安이업고 速히發作을 鎭하고 喘鳴을鎭定하야 治療를 促進시킵니다。
錠劑 三○錠…一·○五 一○○錠…二·七○
大阪·東京 田邊商店

志らが赤毛染 るり羽
곱고 윤한黑髮! 生한 젊음과 어여쁨 이야말로 るり羽가가진魅力
特長
一、洗髮할때에 염색도될수잇고
一、藥은조곰도 기름에녹고
一、洗髮할수록色彩이더하고
一、옷깃과베개를더럽히지안코오래가고
一、日本髮洋髮어데나조코
一、가장쓰기조흔染毛
(各藥店에잇습)

きれいる
淋巴腺結核……에 ◎바르는 專門藥治療法의效果
▲나려온 목、가슴、겨드랑이等에 멍울이생기는 淋巴腺結核을 이르키는 實로 悲慘한 病이다

충분한 營養! 튼튼한 銃後!
東洋一! 實行·品質
大概히 經濟的이오 滋養이 豊富하고 衛生的이라는點에서 發育期에잇는 아기네들에게는 업서서는 아니될 必須品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愛用하여주시기 仰望하나이다
宮內省御用達
工業案內
森永 ビスケット 詰合
비스켓도

咸南鰮漁業極閑散

漁獲比前年三割八分九厘!

業者들의打擊甚大

【元山】금년도함남연안의정어리의 어획은말할수업는 참상을이루고잇는바 상업통계까지의종어획통계를 보면 작년도에비해서 상당한감소를 ... 엉터리업는 수자를제시하고잇다고한다 이것을 각어망별로 본다면 다음과갓다고한다

定置	一五、一三六樽
巾着	一、一三、一七八
流網	八四、七六一
合計	一、三三、一六五

그런데 이것을 각어망별로 작년도에 비하여보면 정치어망은 팔할五부 유망은 일할一분 유리건착어망은 사할오분삼리로 합계 삼할팔분구리가 되는형편이라는바 이와가튼 현상이 지속된다면 함남연안의 온어업계의 대타격이므로 어장확대와 허가건수의 감소부구는 가장 타당한 요구라고 하지안흘수업다고한다

順川記者團에 基金百圓寄附

【順川】지난十월某일에 창립된 순천기자단은 기금이업는 관계로 모든계획을 달하지못한다는 소문을듣게된 사인면대성양조장주노성식(舍人面大成釀造場主盧聖植)씨는 기자단에 기금으로써 일백원을 자진기부하여왓스므로 단원일동은 감격에 넘치는바이다 씨는 지난여름에도 제일선에서 활동하는 황군에게 보낼 도야지고기「간즈메」를만들 도야지매수금이부족하얏다는 말을드른씨는 역시자진하여 부족액이백여원 전부를부담한일도 잇섯다하며 일반은씨의 장거에대하야 칭송을마지안는다고한다

明太漁場을中心 密漁船出沒頻繁

【元山】근일 동한을 압두고명태어의 수양은 본격적성어기에 이르러 활황을이루고잇는 바이에잇서서 그명태어장인 마양도와 퇴조부근에는 요지음 허가업는밀어선이 다수출몰하여 일반업자에게 거대한타격을 주고잇다한다 그런데 이바다「갱」인 밀어선의 출몰은예에비해서 금년도에는 더욱심하바잇다는바 그판게는 현재 그취체어선이백양환(白洋丸)이업스므로 오직북양환(北洋丸)하나만이취체에 당하게되엿스므로 이허실을 엿보고잇는 "바다의갱"들의 발호가 가장 심하게되엿다는바 그중에는 상당한 마력수를 가진선도 잇서서 취체당국도 두통을 알코잇는바 여하튼금후 발견하는대로 엄벌에 처하리라고한다

十萬圓土地를 登記안해쥐告訴

【咸南支社發】본적을 경성부본정에둔 조정희(趙晶熙)은 동판정에사는 한상억(韓相億)으로부터 주을부근(朱乙附近)에 잇는 토지 어백오십정을 구만칠천원에샀는데 그때 계약금으로 일만원을주고 잔금은 지난팔월에 전부지불햇스나 오늘까지 등기수속을 해주지안어 비밀리에 조사하여본즉 조선신탁회사와 선일척산회사에 저당된것이 판명되여 대전지방법원(大田地方法院)에 고소를 제기하엿다한다

衣類를窃取 大田署서取調

【忠南支社發】지난십사일오후세시경에 본적을 경북안동읍(安東邑)에둔 장서일(張西日)은 수일전부터 갑자기치워저 입을것이업서 생각다못해부내 모백화점에 침입하야 내의와 목도리 시가약팔원가량되는 물품을 훔쳐가지고 나오다가마침순회하든 대전서원에게 검거되여 방금엄중취조중이라한다

盈德轢傷兒遂死亡

【盈德】경북영덕군 영덕면남석동(南石洞)에서 약방을 경영하는 이모(李某)의 차녀이분숙(李粉淑)(三)은 지난사일에 경북자동차회사 영덕영업소소유 경북제일천오백이십팔호화물자동차에 치여 생명이 위독하다함은 기보하엿거니와 이래대구남산의원(南山醫院)에 입원치료중 다량의출혈관계로 지난십사일오전십이시경에 사망하엿다고한다

三萬勞働者必要

土木工事及炭鑛其他鑛山에서

平南道서十四年度에

【平南文社發】노동자 조정을위하여 평안남도당국은『노동자조정요항』을 제정하고 각군부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도각군면사무소에 노동자상담소를설치하려는등 만전을 다하고잇는바 도사회과의 말에의하면 명십사년도 평안남도내에서는 실토목공사에 일만오천여명 광산방에 일만오천명 합계삼만여명의 신규 노동자가 필요하다는데 과연 당국의알선이 어느정도까지 하게될는지 국책수행이라는 견지에서도 크게주목된다

愛國館落成式

【平南文社發】전야에서 황국을위하여 비장한부상을 당한백의용사들을 위로하기위하여 평양주대덕(朱大德)씨이하 서선일대 도민의열성으로 평양육군병원구내에 위용당당히 건설된애국관(愛國館)의 낙성식은 이십일오전구시부터 중촌(中村)군사령관 림석하에 성대히거행케되엿다

그사이에 일기가 대단이불순하야 유행병이나 유행하지안케는가하야 자못 염려스럽던바 근일은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기후와 아울러 처처에 환자가속출하야 그중에는 장질부사 진성천도 잇서서 취체당국도 ...

熟練勞働者登錄

為先勞働調整을期코

【平南文社發】국민노동제도의실시에압서서 평안남도에서는 부군(府郡)으로하여금 각관내업자와 협력하여 숙련 노동자급 우량노동자를 조사하여 이를등록하야 노동조정에자하게할것을『평남노동조정요항(要項)』으로 서규정하였다

盜難防止懇談會

【鎭南浦】진남포 경찰서에서는 십오일부터 연말경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동시 천상서장이하 서원일동이 총동원하여 철저적도난방지와기타 범죄검색에 당하여 필사적노력을 하는일방 부내각은행과 금융조합우편국소 무진회사등 금융관게자를 십오일오후두시 남포서루상에 소집하여 도난방지에관한 좌담회를 개최하고 만전을기하엿다

共同墓地新設 平壤趙金里에

【平南文社發】평양부에서는매일평균이십여명의 북망산으로길떠나는 사람이 잇는데 현재의각공동묘지는 모두만원상태에 잇고 또 부세확장을따러 그묘지들은 불로서 풍치위생으로도 자미업시되여 새로운동묘지를 설정하고저 후보지를 물색중이다가 보통교의 서남방십리상거지점에잇는 룡산면조금리(龍山面造金里)조존부근으로 결정하고 이십오만평의 산야와 바꿀입수한후업마전 정식으로 도에 설정신청을 제출하엿다

뻐스料金引上에 清津府民들不滿

十錢均一制를二區制로

【咸北支社發】함북자동차회사에서는 청진시내뻐스요금을 종래 십전균일이던것을고처 두구역으로 만들어 한구역에 십전씩 하고 두구역이 될때는 이것을 십오전으로 대폭인상(大幅引上)을 단행하려고지금 관게당국에 신청하야 일반부민들을 놀래게하고잇다 원래가청진시내『뻐스』가 십전의 요금을 받는것이 비싸다는인데 이번에만약 이가튼 요금변경이 실현된다면 시민의 불평은 언제까지 잠잠하기 어려워질것이므로 차제에 회사에대한 단속을 당국에 요망한다는 강경론이 대두하야 사태의추이를 주시하고잇다

玉蜀黍大幅引上

桃峴共同販賣所에서

農民은尙今도賣惜

【桃峴】옥숙서(玉蜀黍)명산지인 비현에서 공판제를 실시한다함은 기보와갓거니와 가격에잇서서는 지방상인들보다 헐가로 사게되기때문에 일반농민들은 가격인상을 갈망중이드니 지난십칠일비현시일에는 군농회와 비현금융조합에서 매백근부 일등에 유원십이전 이등에유원이전 으로 인상하야 전갑세비하면 백근에 유십전이 올랏고 한말에는 십삼전이나 더올라 실로 농민보우의 사명을다한다고볼수잇다 그러나 일반생산자들은 여기에 만족을 엇지못하고 한말에 일원오십전이나하여야 다른곳가에 비등하다고 파는것을 애끼고잇다 그리고지방상인들도 공판과 못지안케고까로 사기때문에가격을 인상하엿스나 공판으로가는수는 아직적다고한다

碧潼에腸窒扶斯發生

【碧潼】평북 벽동(碧潼)지방은

傑作流行歌의 大競演會開催 平壤金千代座서

【平南文社發】저므러가는『예술의도시』평양을뜻기고 보내려는 술거운 멜로디ー의밤—평양대중예술연구회(平壤大衆藝術研究會)주최로 십구일 이십일양일오후여섯시반부터 평양금천대좌(金千代座)에서 걸작유행가대경연회(傑作流行歌大競演會)가 열리는바 이대회에는 다음과가티 빅타ー와오케ー의 전속가수를비롯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천재가수들이 출연하게된만큼 비상한 흥미와 인기를 모두고잇는데 출연자는 아래와갓다

宋達協 金福姬 柳鄕 金蘭芳 田樂花 金淑姬 韓七玉 샤리 ·빅타 吉川信子 李景如 張豐 文 趙槿元 李鍵如 秦宇星 金 永鎭 曹永恩 文炳方

全南海苔大豐作

百五十萬圓突破

比前年百萬圓增加

【全南文社發】전남산의해태는질에잇서나 양에잇서 이미동양해태게의 왕좌를 점유하엿다함은 본보에 기보하엿거니와 금년전남해태양식면적은 약삼천정보에 그양식성적은 대풍작으로 금년내에 해태채취는 구만속(束)가량인데 예년의칠할전속에비하면 실로 팔십구만여속의증가로 금액에잇서서 예년의 십이월말까지 금액이 오십만원이든것이 금년은 일백오십만원에 달할으로 일반생산업자는 대환희라한다

釜山署花柳街團束

【慶南文社發】부산경찰서에서는 장기전하의 총후국민의 자숙자게의 질서를기케하고저 화류계방면의 철저한 취제를 강행하기로되엿다 그리하야 지난십칠일 예기 창기등의 포주에게금후 신규포입(抱入)은 일체인정하지 안는다는 통지를 발하얏스며 다시음식점 작부의 절서적숙청에 나아가기로 하는 일방 뻐너스경기에 기퍼가는 카페 음식점의심야영업을 엄중취체하기로되엿다한다

金海强盜逮捕

【慶南文社發】지난 십이월이일 오후열한시반경 경남김해군이북면 명동고개(二北面明洞峙)를 통행중의 동면 시사리 여범회(呂凡會)(三二)김성곤(金成坤)(三八)두노인을 협박하고 소지금삼십십원을 강탈도주한 사건이잇서 소관 김해경찰서에서는 지난십륙일오후여섯시경 김해읍 동상동(東上洞) 김재식(金在植)(二一)의 소위인것이 판명되여 자택에 잠복중을 습격검거하야 지금 엄중취조중이다

照明彈

◇경성에서는 이처살해사건으로 세상을놀래이자 ◇평북철산군(鐵山郡)하에서는 어린 자매(姉妹)참살사건으로소동 ◇십육세소녀에게는 치정관계라고도 의심이되나 여섯살바게아니되는 소녀까지 죽임은 무슨심사? ◇연말경계자상엄한 이즘 이런범죄속출은 더욱기이

南浦署活躍 虛禮廢止에

【鎭南浦】진남포서 보안게에서는 십오일부터 전국적으로 개시되고잇는 총후보국강조주간실시에대한취지를 철저하는의미로써 십오일부터 열흘동안 영화의전당인항좌와 중앙관「스크린」을 통하야 전조선장병의뇌고상상과 년말년시의 허례폐지와랑비를하지안토록 선전하고잇다

地方人事

▲勝尾信彦少將(朝鮮軍報道部長) 黃海道延安、信川、黃州各地兵器獻納式參列次出張

▲竹本利作氏(新義州府尹)新任人事次 本社新義州支局來訪

라디오푸로그람

十八日(日曜)

◇午後六時 노래공부 (二)『설노래』(나이) 尹石重謠 金聖泰曲 金學貞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去舊就新』 佛教專門 權相老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二〇分 歌謠曲 一、담배롱고(李) 二、눈물의連絡船(劉) 三、님도꿈이런가(李) 四、上海뜨거자(劉) 五、妓生手帖(李) 六、눈물의黃布串(劉) 李玉蘭 劉鍾燮 伴奏 京城放送管絃團

◇同八時 俗曲 一、念佛 二、打鈴 三、신아위 四、굿거리 大笒方龍 細笛韓成 笑琴金德 杖鼓池龍九

◇同八時三〇分 라디오드라마『새봄의微笑』四景—金健作 ◇配役 朴致運 洪開明 榮子 李白姬 그母親 南宮仙 李英浩 權一晴 電話거는女子 池季順 朴昌述 演出李一達 效果崔

◇同九時 新作唱劇調『金剛山歌』 歌手丁金 元聲

◇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明日番組順序

◇同一〇時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ー드音樂

第一放送

◇午後六時(大) 童話劇

◇同六時二五分(廣) 講演

◇同七時二〇分(東) 軍歌

◇同七時五〇分(山) 鄕土演藝

◇同八時五分(東) 舞臺劇 市川猿之助 水谷八重子

◇同九時五分(東) 浪花節

十九日(月曜)

◇午前七時五〇分 皇居遙拜 (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五一分(東)라디오體操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 大口勝 日用品時勢

◇正午 (東)時報

◇正午零時五分(京)和洋合奏 東洋音樂團

◇同零時三〇分 뉴ー스 指揮 平山雅章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겨울의家內衛生』 京城帝大講師 崔義楹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

◇同六時 兒童劇『□韻새』(앵무새) 童心會 作과指導 朴興珉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情報

◇同七時 뉴ー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七時二〇分 講演『經濟警察에對하야』 總督府警務局長 三橋孝一郎

◇同八時 (東)四重唱 一、圓舞曲集 브람스作曲 가、사랑歌作品五十二 브람스作曲 가、사랑시러운處女여 말하라 나、물소래 바위에속삭이는곳 다、나의江畔에서 라、아니예다웁게하면 아니되요 마、작은새는나래친다 바보서요반작이는불결을 사、호릅니는물결 二、圓舞曲集 새사랑의노래 作品六五 브람스作曲 가、靈魂아救할은絶望이로다 나、밤의어둠 다、어는손에나 라、당신의은瞳子마、아드님을注意하서요 바、울창한山中에서 사、그아들과속삭인다 아、密林山여네그림자는 자、아ー나의사랑하는니여 차、『終末에』—게ー테의詩에서— 소프라노 岩谷光子 아루트 四家文子 테너ー 太田黑養二 바리톤 德山璉 피아노 今井治郞 川口軒六

◇同八時三〇分 西道歌謠 一、孔明歌 二、배다라기 三、京四首里 金秋月

◇同九時 對談『寶反爲慰』 張鶴仙 朴一泉

◇同九時二〇分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明日番組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 (四四) 宋今璇

第一放送

◇午前七時一分 支那語講座

◇午後零時五分(東)和洋合奏

◇同六時(城)이야기

◇同六時二五分(城)講演

◇同七時二〇分(東)歌謠

◇同七時四〇分(東)講演 下村宏

◇同八時(東)四重唱

◇同八時二〇分(城)箏曲

◇同八時四〇分(東)時局讀本

◇同九時(大)義太夫

朝報案內

貞鑛 名園有望鑛山賣買 投資希望者三參務 料理帶直接本人午前中來訪 京城府東四軒町二八 太陽興業社 鑛業部

裁縫月賦 有利한條件 販賣開始 有名한返信付 地方 月賦 ミシン 平壤府柳町 ミシン商會

社員募集 一、商業學校卒業程度若干名 一、可成會計事務に經驗ある方 一、府內に有力なる保證人を要す 履歷書持參本人午前中來社乞ふ 京城驛前 株式會社 サンエス商會

말더듬이 訥言專門矯正院 訥言에苦悶하시는분은오시오 絶對責任지고바다드림 京城府□□町□□ (矯正規則無料送呈)

昭和アミノサン釀造所 醬油調味料 (郵便切手二十錢送レ見本送ル) (營業案內書送呈) 釜山府凡一町電車終點前

女子接客係員募集

今般和信東館四層에御好み食堂을開設하옵에女子(内鮮人共)의接客係員을募集합니다

一、資格 年齡十八歲부터 二十六歲까지 容姿端麗한분

一、待遇 給料優遇、衣服、食事支給

一、希望者는 午前十時부터 正午까지和信벨二階 御好み食堂事務室로來談하시압

和信百貨店 御好み食堂

生徒募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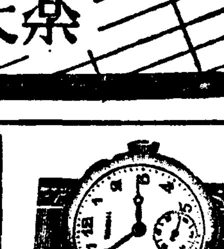
京城工科學院

▲鑛山科 ▲電氣科 百名 百名 一個年卒業 六個月卒業 ▲學則 要三錢切手

出願 昭和十四年二月七日까지 試驗 同年同月八日

京城府蓬萊町一ノ九五 電光一七三番 (元京城測量技術講習所)

華麗한것에고울리지마시요 ランランポマード는이가진당신의絶對支持하
고잇사오니 산뎨리아의映光도 舞踊의線의美도 ランランポマード
의優雅한香氣와美압헤야 무는光彩가잇스리가、당신의頭髮의美
를잘認識해주십시요


時計는반드시セイコウシャ 營業所呈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ノ一六 振替東京 一五七九四一 謹カタログ 三錢要郵券

本科 土木部 電氣部 測量部 (一ケ年) (一ケ年) (二ケ年) 二〇〇名 六〇名 六〇名 特別科 電氣部 測量部 (一ケ年) (六ケ月) 六〇名 一二〇名

奉天工業學院生徒募集

出願 考査 資格 昭和十四年一月十日 同月十一、十二日 尋常小學卒業者 奉天市北陵大街(萬國球場前) 電話②四、七七八番 一、四六六番 (學則請求要三錢切手)

寄宿舍設備アリ

武田發賣品

淋疾

急性・慢性淋疾、淋疾性의副睾丸炎、關節炎、膀胱炎

イスラピン糖衣錠의 主效分은最新의 殺菌劑二・六テアミノ—メチルアクリヂニウムクロリッド 로서 淋菌에對해서 强力한 殺菌的發育抑制作用을 有함

本劑의內服은 靜脈內注射用イスラピン注射液(使用)에 比하야 거의同樣의 効果를 보게되고 또한 內服藥의 特性으로서 治療作用은 長時間에亘한 特長을有함

【用法】一回一錠、一日三回毎食直後服用

(20錠(五錢) 50錠(一圓) 100錠(一圓八十錢) 300錠(五圓) 500錠(八圓) 1000錠(十五圓)) 有名藥店에잇슴

イスラピン 이스라빈 糖衣錠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道修町

各般醫藥品 衛生材料 有名賣藥 各社新醫械

—醫學用藥品 衛生工藝用藥品 化學用藥品 工藝用藥品 釀造用藥品 農藝用藥品 一般化粧品—

註文은多少를不拘하고下命하심을願하나이다

營業月報 每月發行하오니 希望하시는분은用命하십시요

京城南大門通一丁目 電話本局 二—〇九四 二—四〇〇〇 三—四六八九 五—三四八八 (番番番番番) 振替口座 京城一一六番 私書函 京城局一六番 受信略號 ケイゼウクスリ

株式會社 新井藥房

學生 페―지

(想)(華) 歸鄕하는 마음

城大 申龜鉉

문득 방학이 닥처오고보니 새삼스러이 나의 고향이 그리워진다。그곳은 덕곡(德谷)이라는 곳으로 오십호 미만의 궁왕신가튼 오막사리의 집단지다。뒤로는 군대산 준봉이 못봉도리를 누르고 하늘 노파 소사잇고 압면으로 자정나무가 팍드러선 새길을 버서나서 벌욋길을 한참 달리면 크나큰 못이 잇다。물이 맑고 정하기가 거울장갓다。이 두 존재는 더꼴 농민들에게 신비화 하여잇다。봄이고 가을이고 날이 조커나 달이 밝어 만귀잠잠한때 신선들의 노름터라 한다。

더끌 사람들은 그야말로 일년내내 뼈가 녹도록 노동을 하지안흐면ㅣ 그러지안허도 해마다 빗을 저가는데ㅣ일가를 부지해나갈수업다。그들의 말에 『죽도록 일해주고 못 어더먹는것』은 부지깽이가 아니고 그들자신이다。

눈코뜰새업시 논틀밧틀 헤매던농번기인 가을철이 지러 소위 농한기인 겨울이 백설을가지고 더끌을 찾는다。길이부치고 얼어부터 교통이 끈허지고 만다。그러나 이때가 그들에게는단판씨름을하여야할 대마루판이다。나무를하러 찬밥덩이를차고놉다노픈 군대산 등갱이를넘어 엄바람골을 향하야 몃십리길을하지안흐면 아니된다。이박게 생활방도가 업스니까。장에서애들은 한짐사오십전에 장전은팔구십전에 팔어가지고 좁쌀과생선동태를 두어마리사서 지개에 대롱대롱 매달고 보금자리로도라가되 돈이좀 남엇스면 이야기책을산다。

장에가기전에 어머니나 마누라가『춘향전』을 사가지고오라느니『홍길동전』을 사가지고오라느니『구운몽』을 사달라느니 애걸복걸 만단설유의 까닭도잇섯겟지마는 제일먼저 자기자신이 조하하기때문이다。장날저녁애는『김서방』은『숙영낭자전』을 박서방은『사씨남정기』를 차서방은『구운몽』을 사가지고왓다 소문이 확돈다。저녁도 먹기가 급하게 더끌 굴대장군들은 듯고지퍼하는것을 차저가는것이다。

우렁차게 뿜어나오는『각설이때』소리에 어중이 떠중이의 귀는 잠잠해진다。어느 사나이는 울기까지한다。옷쪽에서 석양내기에 끌물하던 못아이들은 무슨 영문인지를 모른다。이리하야 그들은 날밤을 새다시피한다。어떠튼 그들은 인테리겐차이상의 독서욕을 가지고잇다。그들은마음으로『춘향전』을『홍길동전』을 질겨하야 마지안는다。

생각하건대 조선 이야기책의 가진바 특색은 작품중에 움즈기는 주인격의 인물들이 지는법이업고 초인격성을 띄운것도 그중의 하나이겟지마는 특히 누구 눈에던지 선뜻 띄이는것은 편묘찬양의 관혁박이라는 것이다。『춘향전』도 그러하고『심청전』도 그러하다。소위 사회소설로 알려진『홍길동전』이그러하다。그중에 그려어진 유토피어『율도국』이 계급타파적서차별타파를 기치한 농민대중을 위한지상의낙원은 아니고편묘적의정을한 봉건국가의 재탄생그것이다。

그러면 그들 더끌사람들은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어이데오로기를 찬양하므로써『춘향전』을『홍길동전』을『……』을 질겨하던가? 그러치안코 형식으로 드러가 이야기책의 표현양식이 그들과 절근한 때문인가? 어떠튼 이문제는 현대조선문학상에 가장 크나큰 당면된 문제로 독자획득의 수단으로 가진중책을 도모하는 우리문단이 해결지어야 할것도 농민과 이야기책의 관계가 아닌가? 우리는 현미경보다 망원경이 먼저필요 하지안흘가?

나는 이문제를 품고 방학을 이용하야 그들 더끌사람과 이야기책을 가티 읽어볼가한다。

冬期放學隨筆集

隨筆 양지쪽

延專 鄭廣鉉

三寒四溫

이는 이땅의 겨울날새中 特筆大書할 한 氣候다。

체박휘 돌듯하는 季節이것만 때로는 이러케 法則을 억이는수가 잇다。

비록 宇宙의理이나 例外업는 法則은 업다는 規範을 넘지는 못하는 摸擬이지 例外가 다시한 規範이 되는세음이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멀지 안타』

이얼마나 希望에 넘치는말인가。

이말보다 조금 더어 사흘만 추우면 나흘은 따스 해진다 웅승그렷든 허리가 잠시나마 펴질수잇다。

사람이란 늘 어려케 다움아니 來日을 希願하므로써 그날그날을 合理化 시키고 또는속어서 살어 감이 아닐가 來日이 잇스므로 오늘을自慰한다。

살을 어이다 못해 가는바늘끈트로 쏙쏙 찌르는듯한 추우뒤에 오늘은 어디할테업시 해비촌 엽으나마 아늑하다

『冬暖이 如春日』어라格이다

長安 멋千戶의 논가려 놓은듯한 개와골에는 물끼가 지르르 하게흘른다。

함부로 되다말은 都市는 잠하늘에『애드바룬』을 聯想할만한 날이다 매웁고 쌀쌀한맛은가시지 안햇다。거리엔 한쪽만이 해가 비친다。가로수는앙상하게 오물오물 떤다。

웅승그리고 다니던 사람들은 재우동하니 陽地쪽으로 발길을 돌린다。

더벅머리에 검정이 잔뜩무든 거지떼가 陽地빠른 씨레기통을 에워쌌고 안저 기지개를 괴얼만 하다。

이러케 날새가 조하 질라치면 우중충한 내방에도 자그나마 變化가 생기게된다。퀴퀴한 방속에서 애꾸진 연기와하품만 밤나스로 삭키던 水仙花가 볏비츨 맛보게되는것이다。

水仙花하면 누구나 다 南國의 湖畔을聯想할것이며 애둣한 哀愁感을 直覺할것이다 재겹게 한포기 두포기가 잇스리라마는 생각도 안할거다。그러나 그건 다 舶來式思惟다。

내방에 노힌 水仙花는 純東洋的 情趣를 갓춘 겨우 한포기뿐이다。

언제 겨우 멍어리가 몽글몽글 나오랴는대 질그릇 오목한 접시에 자갈을 의지하고 잇다 흰뿌리가 제법 만하 젓다。

그리고 또 몬지가 담뿍안즌 치자나무가 무뚝뚝한 내손아귀서 陽地쪽으로 옴겨진다。

나이 어린 내가 水仙花에 물을 가려주고 치자나무에 몬지를 턴다고 안울일업건만 이는 암만해도 내겐 어울리질 안는다。젊은 여석이 너무 곱살 구즌것갓다。

萬一이런 陽地쪽에서 할아버지나 그러지 안터라도 나이나 길죽이 잡수신 어른이 물을 갈어주고 몬지를 턴다면 어울릴것만 갓다。

그하라버지 게신 방엔 길로다 古書가재여저잇고 文庫에 암전하게용을아로색인 벼루가 노혀잇서야 더한층 風致가 잇스렷다 그리고 그 하라버지는듯서던 장죽을 마루에노시고 토시 끼신손으로 쪽바에다 물을떠다 치자나무에 푸푸 뿜으신다。또 치자나무를 옮기시다 그가지에갈투가 걸처 약간 삐뚜러지면마루에서던 손수녀석이

『하부지… 하부지…갈대…떠어저…』

하며 단풍입가튼 발간 언손을 휘저며 발을 동동구르는 點景이잇서야 格에、마질것갓다。

이야말로 무스곰살구즌 생각이냐。

무엇이던지 제格에 마저야 어울리고 그情趣와 雅淡함이 더해진다。

겨우내 유난히 우중충햇던방은 들창까지 잔뜩 가리도록치쌔혓던 엽집 장작덤이가 점점 야터지자 번번치못하나마 요런 따스한날은 햇볏 구경을 하게된다。

그 창밋 책상머리엔 따스한 볏치 담뿍 차잇다。

유리알은 해맑게 뚤허진 장판우에 아룽거린다。

말라빼진 柚子한알이 잉크가함부로 엎지려저 잇는 책상에서 둥근다。

아직도 그 餘香은 남어잇다 꼿업는 水仙花 한입이 한득인다。

나는 放學을 來日 모레로압둔 來日날이러케 陽地쪽에 無聊히 안저 잇다 다음은 무엇을 希求하고、放學동안은 무엇을 할가나―

콩트 禁斷區

中專 金容泰

해는 저간다 눈은장미색으로 물들이고 한몽치식 볼어오는저녁바람은 소복여 싸인눈가루를 휘날리며 지나간다。

M수도원(修道院)이 마주보이는 단한가우 잇는 언가에 투숙한지 닷세 M수도원 공수녀 혜숙에게 어집마네아놈을 셔켜 남몰래 편지한지 사흘되는날이다。

혜숙이가 내 힌두루막이애뻘간괴를 여지업시쏫고 어디로인지 가버린다는 내자신은 각성한향락자로써 신앙과희망 시와 환상을버리고 동경을버리고 마스막엔 내넉세대한 미듬과 사랑을 죽이고 푸리도니한 여성(혜숙)숭배를 업새고는 영원한 회의론적인 허무적인생활을 게속하려하엿스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환상과 그의이지적인성해가 내중추신경에 침전됨은어찌할수업는 일이엿다 그리하야 나는 이 방학을 이용하야 여비한입 지닌것업시 불틀롱안도보로 M수도원에이르게되엇다。

『밤이깁거던 뒷산 제일큰 상록수미테서 만나기로하나 다변(多辯)하야 죄업을수업노니 나에게말은 한마디도 삼가 주시기를 미리일러둡니다 산길이험하오니 조심하시기를 바라며… 혜숙』이런 글발을 이집마네아놈이 전한때는 그에라도 울어또고시들만치 히열에날뛰엿다。

부훙새울음이 잡든만상을 돌려싼 죽엄의침묵가운대를 심원하고 부동하는 파도우를스처가는 갈매귀울음처럼 여페 지나갈때 나는 힌눈을 밟으며 요부의심술처럼 험한산의 비탈길을 올나스핑크스와가티 거장한 상록수미테 기대서게되엿다。

은가루처럼 날려지는 눈을 어깨에실어가며 유령의 불빗가티 깜박이는 M수도원의 문압 석유등을바라볼때 나는 새삼스럽게 무서운 범죄인의 싹늘한심경을 감각할수잇스며 내심장은 무거운 질곡에서 숨가삐허덕여젓다。

그러타 이제쫌은 마리아성상아페 무릅을꿀는 공수녀 혜숙어는 무서운범죄가 시작되엿스리라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수도원)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나에게 만나려오는일을 생각하자 나는 서의파를 따러도록 이보를패하던 싸탄이 내아페 엉거주춤하고잇는 광경이어른거렷다。

그러나 그러나 나는 만나므로써 내 영육의 영원한 저주가잇다하드라도 만나야될것이다 그리고 이번만남은 최초이며 최후인것도 가타다。

나는 용기를내여 철바하고 청련한 백설이 싸여진 M수도원과 압을 멀리뵈이는 산맥을보고 뒤도라 산맥들이 바다처럼 물결치는 위위한 망경이 보고 시펏다。

돌아서자 나는 고함어라도칠만치놀랏고 몸서리가 끼첫다。몸에는 후출근한땀이 새암을느낌후 내신경은 극도의피로로완전히마비상태에 빠젓스니 나는 아무 지각도의식도 상실하얏다 다만 히미하게 일어진것은 하이얀옷을입은 혜숙이가 내아페 무릅을꿀고 합장한채 고개를숙으리고 잇다는것만은 알엇다。

부흥새울음도 들리지안하얏고 흐날리던 눈도 죽어버렷다 스무이틀밤 차거운달에 광막수백리의 창백한산맥들을 서서히 빗추기시삭드니 혜숙이와 나를포용한 만상을 함께 고루비치워수엇다。

얼마를 지낫는지 시간도몰랏다 다만 달비치 성스럽게 비치워 성모마리아의 상처럼 청정하고 경건한 혜숙을그럼히 처다볼때 어디서인지 적은 발자욱소리를 드럿다

『언니! 마돈나언니!가요 제야요』

『………』

『가요 언니 나를버리실테야요 하늘에게신 하느님이 나를버리실가 아니 성모마리아가 나를 버리실가 나의참된태양 성스런비친 마돈나 언니가 나를 버리시던 안켓지』

『………』

『모든 신성한 계시(啓示)를맛는데 방해되는욕(欲)은 단절하여야 되지안수!사랑의욕、육체의욕 그리고 헛된희망이나 헛된정열이비저낸 정복의욕은… 빨리가요 가서 성모아페서 거도드리고 묵상하야 정죄(淨罪)한다음에는 미사성제에 열참하여야하지안쏘ㅣ』하며 일으키나 공수녀 마돈나는 의식을일코 절들못하얏다。

마돈나를 억지로 업고나려가그수녀가 비탈길에서 자빠러질줄이야……그러나 힌눈우에 댕강댕강 떨려지는 이마의피를뿌리며 도라갓다

나는 M수도원의 새벽기도의 종소리를 드른후에 나로 도라서서 공수녀 마돈나(혜숙)를업은 수녀의 성스러운 괴방울이 뿌려진 눈우를 밟으며 나려왓다。

아침일직 보혜미안만이 느껴보는 애수와 회허가운데 M수도원을뒤로두고발을옴겻다。(끗)

…지난해冬休日記에서…

마즈막 放學을아페노코

盧玉人

쥐를 물어다노코 도사리고잇는 괭이처럼 이번放學만은 멍석미루뚜여돌고 십지안타 아무래도 살켜버릴放學이라고 태연히는겨진다 시험준비보다 먼저 行李와옷장을 엉성하게 버려노코 노트를 외는척하면서 살그머니 시골파 선물을 대조시키며 밤잠을 도적하는것도 다여유가잇슬때엿다 마즈막放學!!이러케대목에 이르니 그생그럽던 꿈은 낡어빠진 風景畵조각갓고 오히려 지루하고 험렬하던學窓生活에 바짝 愛着이든다 하다못해 실흔先生에게 好意가가고 볼으락푸르락하며 듯든꾸지람까지 대스럽잔케 여겨진다 따저가며 다협한것이 아니라 나스스로도 놀라는 心情이다。

靑春을 벗스려 드려가는 衣裝室!學窓生活이 끗난다고 靑春마저 일흔것이 아니려면 情熱과 職業을 팔어버리고 말겻가튼 不安을 느낀 단주히 放學만이 아니라 學校에서 世上으로 옮려진 경우련넴것다 이굴속으로 지나는 동안 책을읽을가 여행을 할가하는『플랜』을 헤아리는것은 下級生의 귀여운 작난이다 이즐을 지난후에 展開될 吉事가 먼저 바빠진다。

가슴에 부친 도입보다도 적은 쇠조각이 무어그리 연연햇스라만 그래도 이걸 꼿고다니며는 車속에서나 거리에서나 어디가던지 빼젓햇다 집에가면이웃집 늙은이들까지『서울학생』이왓다구 좁은골목이 왁자하게 떠든다 공부한다고 모지람은안서킨다 어린녀석하들에게는 女王가티 尊奉해보이고 자랑꺼리엿다 어제 어미께 [illegible] 가 다하버리게 남지안엇다 開學업는 放學을 거듭하는동안처지한 죽하들의 어린가슴을 허전하게한다더지 동네집 늙은이들 얼굴에 주름살 하나라도더 잡히게할것을 생각하면 지금부러 가슴이 뭉클해진다 아카데미를 동에지고 엿는동안은 (簡)女도 부럽잔케 순결해보인다내 마음속에다도『큐핀』을 뫼시고 世미에 응절거리는 사람들파는 다르게 속속거려갈수잇섯다 이 放學이 흘러지나보다 가정부인 직업여성 어느한편이 되려고맙 궁지를 도두고 허리를 굴혀야 한다 생각만 해도 비참한 망경이다 흔해빠진『平凡한女性』에 하나가되는것이 와락 슬슬하다 이번 放學은 어느 希望과 憧憬의 境界線을 보드시 아슬아슬 해진다 忘年會 席上에서 人生의 虛無를 호정한 용옥과 슬픈 때버리드시 험거운 섬사도일어난다 試驗場에 向하는敎授의 죄어시간인한 뒷모양처럼 모지려보이거도한다。

어머니 집에 온줄알면서도어른네 눈을드면 알를안듯한천정 누리끼리한도배지 낫선 旅館인듯、서투러다 언제나 잇지안흔 어머니의 얼굴이 웨저러케 검엇더가 웅성은 저러케 거칠지 어엿는데 퍼는 處女들의얼굴파 웅성으로 充實바든 感覺에 어머님의 늙으징은 너무나뚜렷하엿다 그러나 자리속에서듯는『두부장수』소리도 이내 친절해지고 반갑다 娶집뉴온이의 골를거리는 소리가 記憶을 돌은다 모두가 如前하시구나하는 즐거운생각과 重鎭해보이는 生活에 서운한不滿이 비쳐다。

둥우! 하고 발기괴 드러오는 윤선소리 고요한 하늘에퍼지고 餘韻마저 사라지는 꿈을 잡으려고 귀를 기우렷다 그소리를 드를때마다 限업는 放浪性이 躍動햇섯다 사못친 가슴의피가 뜨거워젓다。이런생각만 해도 港口에서자란 나의 옛날어 생동생동살어온다。

放學! 부르켜 안고십드시情다운 音響이다。

想隨 (歸去來兮여)

世專 金汝鶴

『歸去來兮여 田園이將蕪어니 胡不歸리요』이것은 두말할것업시 陶淵明의有名한 歸去來辭의 頭書다。나는 放學이되면 어쩐일인지 이글귀가 작고 生覺난다。

아마 地方에서 서울로 工夫하러와잇는 學生의하나인 탓인지도모른다。한學期를 마치고 그동안積阻햇던 故鄕의父母、親戚知己들을 만나러가는 기쁨도크러니와 나에게는 무엇보다 工夫하는 그것부러가 艱難스러운 生活營爲의 하나로밧게 보이지안는 번거로운 都會留學生活을 버서나서 때때로 안윽한故鄕의 自然의품속으로 도라가볼수잇는 기쁨도 옛詩人에 못지안케 크다고 誇張하야말하고십다。그러므로 나는 放學하는대로 곳바로歸鄕하는것이 둘도업는樂이다。

爲先 淸凉里驛에서 汽車를탄다。東北으로 二十餘里―京元線을 三四時間 줄다름치는 동안에는 아직도 車깐에 서울서싯고온空氣가 그대로 남어잇는것가태氣分도 서울의延長이다。그리하야 平康이라고하는 조고만驛에서나려 처마끄테 김이서리는 국수집에드러가 點心한그릇을 사먹고나서 펄펄거리는 村自動車에 몸을실리면 그때야 비로소몸과 마음이 함께시골로 나려온것을 똑바로 느끼게되다。

한고개넘고 두고개넘고 그러케하는사이에 꼬불거리는 山길을 故鄕으로닥어스면 닥어슬수록 眼界에 나타나는風物들이 모다 낫닉고 친숙하여진다。길여페 스치고 지나가는 둘바위하나 실개천하나、마을하나、어느것하나 낫선것이업다。허다못해 포도동!하고 풀수평에서 날러가는 산새한마리까지 눈에 닉어보인다。

이것은 아침에거른 거리를 저녁때 거러도 서먹서먹하고어디인가 모을곳이 잇서보이는 서울거리에比하야 얼마나반갑고多情하고 보드러운故鄕의살결인지 모른다 自古로故鄕을 못이저하는 詩情은 바로 이러곳에 움텃쏘리라 미더진다

그러케하야 마즈막으로 구슬고개를 너머스면 故鄕 伊川이 나타나보인다 저녁煙氣가 소복히 언개를낀 조고만 山邑이다 마을을 둘러 그래도 논댓기들어 출렁하고 그저편 西쪽으로 臨津江上流가 저녁해에 반짝거리고 구비처흐르는 貌樣이 제법 詩的이라고 할른지모른다

그러나 해마다 철기따라 放學이되면 반드시 나려와보는나의눈에는 故鄕의『詩』가 漸漸 줄어가는것을 숨길수업다

나는 그것을 처음에는 한學期동안式 서울서 華麗한都市生活에 步調를마춰온 들뜬留學氣分이 貧寒한 故鄕살림들을 한層더 초라하게 만드러보이는탓이 아닌가하고 生覺도 해보앗스나 事實은 그러치도 아흔모양이다。

洞口에서 自動車를 나려 좁은 마을길을 드러가노라면 문허진 울타리사이로 도야지새낀들이 배고파 꿀꿀거리고 드나드는 모양이보이고 어린날 미꾸리 잡으러다니던 논도랑이미여질대로 메여저서 물도업는밋바닥에 죽은개색기가 한마리썩고 잇는것을 보앗슬때는 自己모르는새 頹廢해가는 故鄕의모습을 어렴풋이 感傷한것가텃던 昨年보담放學의 記憶이 새롭다。

나는 勿論 그러한 不幸한故鄕을 차저보기爲하야 歸鄕한적은 한번도 업섯다。모두 幸福된位置에서 故鄕의 로맨티즘을 즐기기爲함에서엿다。그러나 異常하도 이번放學에는 그거칠어가는 故鄕의부름을 밧는것갓고 그부름에 應하야 시골로 도라가면 마음것 故鄕의 山과들과 마을을 거니러서 故鄕의 그늘진꼿 아픈꼿 病드러 시들어가는꼿―그런곳을 차저보고 生覺하고 어루만저주고 시픈 衝動을 느끼다。(十一月十六日)

인……사……말……씀

試驗! 여러분 진정 혼들이나섯지요。어쨋던 受苦들하섯습니다。아프로 겨울放學도 며칠남저혓다。인제 두다리를 쭉―뻗고 活動寫眞 구경이라도 마음노코 다니십쇼。그리고 군고구마랑 사서 군것질도하서구요。試驗을 치르고나면 공연히 속이 출출해저며 무에 작고 먹고시프디。서울와서 下宿에 게서던분들도 宅으로 돌아가시겟군요。어머님께서 연절미와 곰국을 끄려노코 여러분을 마지하실겝니다。어려케 여러분은 조흐시겟스나 겨울放學동안 우리學生페―지는 약간寂寞을 느낄것갓습니다。그럼 부디 잘들 쉬시고 無恙히도라오소서。 ═(學藝部)═

天下一品! 一家一瓶!

ライトインキ (라이도잉크)

이런超非常時! 資源愛護의 秋! 高率寶에 나쁜物品을 오래가게하는 라이트잉크 經濟와 能率의 一擧兩得 (大瓶 小瓶 各種 … 全國 文房具店에잇소)

2온스入 正價 30 선

本舖 ライトインキ製造株式會社

●人形美는

アモンパパヤ

여드름 기미 죽은깨

가업스므로。빗깔이히므로 에티가잇스므로 빗깔이고흠로(○一四)

專賣特許의 藥用크림 アモンパパヤ는 人形美를 가지게 합니다 姉妹品으로 アモンパパヤ洗粉을 쓰시면 藥效가 倍加하니다 東京市神田區 佐町二十 株式會社 信松 田商店에 切手封入하야 見本을 進呈 申込하며 三錢

名畫回想短期週間

十九日▶廿二日

唄ふ陸戰隊

ワーナー・ナショナル映畫 アメリカ海兵團動員令下る。武裝した乘船だ。行き先は浪高き太平洋の彼方、中支の中樞上海 任務は租界の警備ざ 戰線に勇敢なる陸戰隊の行か〜 ディック・パウエル ドリス・ウエストン ヒユウ・ハーバート 主演

戰友 愛よ愛へ

今○○戰線に皇軍の一勇士として銃を取る好漢佐野に捧ぐ想出の花束!

砲煙天を蔽ふ戰場で生も死も越えて結ばれた『男』と『男』の固き友情が火華するメロドラマ!

廿三日▶廿七日

燼灰

本年掉尾を飾る 松竹京都の傑作

高田浩吉 主演 伏見信子 共演 近衛敏明 梅村蓉子

蘆花、德富先生の名作を映畫化し茲に美しくも鋭く描き、ちつとして居られない程、心に迫る

近來の傑作として自信を以てお薦めする一大雄篇

明治座

風病

世間은風病을不治病이라고한다事實風病에걸리기만하면그병으로해서一生을맛치게되는것이다그러면風病은果不治病인가하면決코不然하다何由오하면從來漢醫는이것을簡單히風이라고해서所謂治風하다는藥만을使用하엿고癩菌을알지도못하엿든까닭으로萬에一이라도治癒된例가無한것이다治癒는姑捨하고적은效果도본者가업다그러나本院은有名한殺菌劑特히癩菌을溶解하는藥과또喰菌하는細胞를增進하는補血劑를配合完成한有名治癩劑를發明하기에至하엿다故로本病에苦痛밧는분은躊躇치말고速히强壯チモール丸을服用하라不幾日에本劑의偉大한效果를證明할것이다그리고本劑는도모지禁忌할飮食이업고무엇이던지攝取한다特히肉類와魚類其他一般滋養食物로攝養할사록效果가速할것이다또는本病으로서表面에結節과潰瘍과落眉와鷄風과顔面浮腫等症狀이發現된患者에限하야强壯チモール丸을外上으로드리오니勿失此機하고곳照會하시오(返信料添付照會乙)風病療養法及其他症狀無代進呈함但藥書照會는不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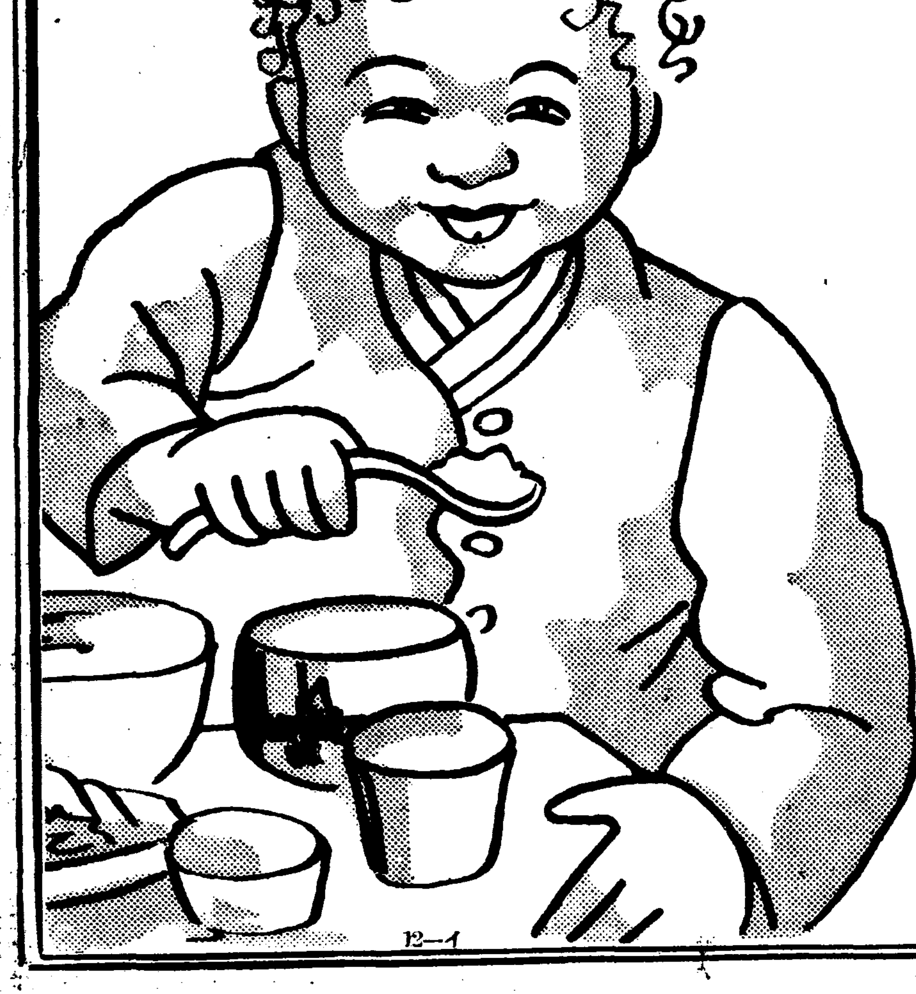
癩病根絶策硏究所 釜山府草梁町 回春藥院

支店 大邱府大鳳町二〇九

回春藥院

福岡縣八幡市丸山町七丁目 壽石藥院

慶南咸安郡北面 壽石藥院



어린애는정직! 아지노모도친음식이면좋와라고 맛잇세만히먹지요!

味の素(아지노모도)(登錄商標)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養榮リサッド 後銃リチッガ

森永の菓子

●學校의成績은 頭腦가第一이오 머리가무겁고 아서머리가대로工夫가 되는時에는 ノーシン

新マツダランプ (新마쓰다 람푸)

東京電氣株式會社